공동체 소식

연중 제3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 1월 기도지향

+ **우리 본당 공동체**
+ **본당 공동체의 각 가정**

▣ 본당 평협회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 총구역회 모임(구역장 모임).

- 일시 : 다음 주일(1/31)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 설 합동위령미사 봉헌

- 일시 : 2/8(월) 오전 11:00
- 내용 : 위령미사예물 봉헌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10(수)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입니다.

- 미사 : 2/10(수) 저녁 7:30.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내용 : 각 가정 십자가에 걸린 '성지'를 2/7(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십시오.

▣ 캔사스대교구 '자비의 특별희년 나눔초대-Archbishop's Call to Share'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Catholic Charities에서 감사의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 내용 : 본당 게시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 선거인 명부등록 신청 안내

- 명부등록기간 : 2015.11.15.- 2016.2.13
- 등록대상 :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1997.4.14. 출생자 까지), 영주권자, 2중국적자, 불법체류자도 신고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va.nec.go.kr) 등 본당게시판 참조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8	217	502	63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다음주일	정예찬 미카엘	안광민 야고보
	김정원 안젤라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화년 요안나
		박혜정 카타리나
차주	김대연 요셉	김정서 사비나
		김아람 크리스티나

▣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차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7	70명	336불	3,000불
(총 3세대)			

연중 제3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6년 1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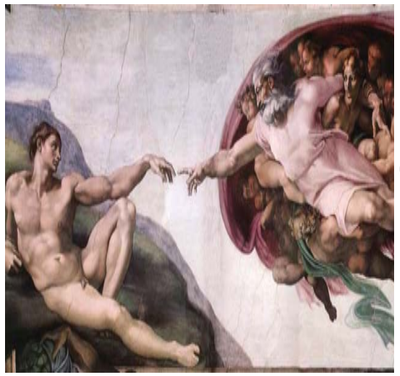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성화해설

천지창조-아담의 창조
(Michelangelo Buonarroti, 프레스코 1511,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6-27)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드러나는 매우 위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그 넓고도 깊은 친밀함이 드러난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느헤미야기의 말씀입니다. 8,2-4ㄱ.5-6.8-10
<레위인들은 율법서를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다.>

화 답 송 :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12-30<또는 12,12-14.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4; 4,14-21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쉐 마

복음 선포자로서의 삶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에 각각 떨어져 나오는 두 본문을 이어 놓은 것입니다. 먼저, 복음 시작 부분에 봉독한 대목은 루카 복음 서문(루카 1,1-4)입니다. 여기서 루카는 자신이 복음서를 왜 저술하였는지 설명합니다. 루카 자신은 예수님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격했던 이들에게서 전해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자신이 전해 들은 바를 꼼꼼히 살펴보고 테오필로스도 그 내용을 잘 알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루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 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루카는 사도 바오로의 제자였으며,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바오로와 다른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복음 선포 사업에 직접 동참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루카는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루카는 자신이 살펴본 바를 나름대로의 순서로 적는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루카는 전해 들은 바를 나름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다른 복음사가들과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카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소상히 엮어냅니다. 이런 루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마리아와 즈카르야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시메온과 한나가 아기 예수님을 두고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말로, 행동으로 증언해 주지 않으면 직접 보지 않은 이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직접 본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우리에게까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해 준 루카 같은 복음사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대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활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루카 4,16-21).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당신 고향 나자렛의 회당에 가시어 이사야 예언서를 읽은 뒤 그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는 바로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내리시어,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 잡혀간 이들, 눈멀고 억압받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드디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미 임마누엘이신 당신이 직접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운 해임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제 청중은 이 말씀을 듣고 믿든지, 무시하든지 둘 중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루카는 우리 역시 예수님 말씀을 믿든지, 무시하든지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듯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님의 종이 되었는지 되새겨 봅시다. 아울러 주님의 종으로써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런 복음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봅시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비정한 여인 헤로디아와 살로메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는 아주 무섭고 잔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녀는 헤로데 왕에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선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여러 차례 헤로데 왕에게 찾아가 간곡히 진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왕에게 진정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6,17-20**

헤로데는 왕인 자신에게 겁 없이 여러 차례 간청하는 세례자 요한을 마음속으로는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 군중들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쉽게 그를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자존심이 상해 일단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틈만 나면 세례자 요한을 비난하고 없애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드디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의 딸인 살로메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6,21-23**

헤로데 왕은 살로메에게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살로메는 잠시 후에 청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다가갔습니다. 헤로디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살로메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살로메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로메는 헤로데 왕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소원을 청합니다. 살로메는 헤로데 왕에게 무엇을 청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6,24-29**

예수님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 더 큰 인물은 없다'고 칭찬한(마태 11,11 참조) 세례자 요한은 사해의 동쪽 연안에 위치한 마케루스 성곽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에는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 살로메가 깊이 관여합니다. 헤로데 임금의 조카인 헤로디아는 자신의 삼촌인 필리포스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의 이복형제인 헤로데 안티파스와 결혼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결혼에 부당함을 거론하는 세례자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그녀는 앞에 나서지 않고 기회를 보며 배후에서 권력의 힘과 다른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비정한 사람이었지요. 이렇게 비정하고 무서운 헤로디아는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최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 묵상

우리는 압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말은
들으면
가볍고
이루어지는 말은
들으면
무겁습니다

말의 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 4,21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